



오래된 미래 -신라인의 사유와 대안문명의 가능성

이도흙

꿈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꽃을 가꾸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살아갔다. 이곳에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는 자가 사람들을 이끌었고,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지도자 또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뇌할 때를 빼고는 항상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무슨 일이든 모여서 이야기를 하여 결정하였다. 사람들은 꽃을 키웠고 별을 바랐으며 그만큼 삶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했다. 발 갈다 남는 시간일랑 모여 앉아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고 만들려 하였다. 사냥을 하긴 했지만 신이 그들에게 보내준 짐승만 사냥하고, 모든 생명들이 자기네들의 몸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발을 갈아도 흙이 일러주고 구름과 바람이 가리키는 대로 쟁기질을 하였기에 자연과 어긋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일을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여기었기에, 함께 일하고 더불어 나누었기에, 일한다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놀이었다. 그리 풍족한 것 같지 않았지만, 내가 한 손가락 덜 먹으면 이웃이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쟁기질을 한 번 더하면 다른 이가 한 번 덜 할 것이라며

매사 서로를 좀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려 노력하였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늘 풍요로워 삶과 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때로는 이를 그림과 조각으로 아로새겼다. 놀이를 할 때도 서로가 똑같이 이길 때까지 했고 놀이보다도 서로 모여 하나가 되는 의례를 더 좋아했다. 죽음과 고통이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이란 것이 있어 무한하지 않은 삶에 새롭새롭 의미를 채우려 하였고, 고통을 통하여 인간과 삶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정녕 이곳엔 이곳 언덕 위의 꽃마냥 사랑이 흐드러졌고,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처럼 서로에게 투명하였으며,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꿈을 꾸었으며, 온갖 강을 품은 드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한데 모아 하나를 이루었었다. 칼나라가 오기까지는.

칼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칼을 다듬고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갔다. 이곳에서 지배자가 되리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칼을 잘 쓰는 자가 싸움을 통해 지배자로 군림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갈망했고 두려워했다. 지배자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과 재물을 얻고 자신의 힘을 키울까 고민할 때를 빼고는 항상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사람들은 꽃을 바라보는 것보다 짓밟는 것을 더 재미있어 했고 사냥감을 쳐다보기도 바빠 하늘을 바라볼 틈이 없어선, 그만큼 아름다움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자연이라 하는 것들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었다. 사냥이나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면 쇠를 두드렸고 칼을 휘둘렀다. 먹고 남는데도 가죽갈래 장식을 위해 사냥을 했고, 제 방을 꾸미고자 남의 재물을 탐했으며, 갈지도 않는 땅을 차지하고자 남의 땅을 빼앗았고, 찰나의 향락을 위해 약탈과 겁탈을 일삼았다. 일이란 것을 자신을 구속하고 쓸데없는 것에 몸을 소모하는 것으로 여기었기에, 남보다 한 삽이라도 더 퍼서 더 많은 소출을 내야 기분이 흡족하여 홀로 일하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했기에, 일한다는 것은 늘 고통이고 투쟁이었다. 항상 양식과 재물이 그득했지만 사람들은 늘 불만이어선,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도 꿈을 꾸려고도 하지 않았다. 놀이를 할 때도 한 편이 이길 때까지 했고 내 것이 분명하지 않은 의례보다는 내기를 더 좋아했다. 죽음과 고통이란 것이 없는 것



은 아니었지만, 죽음이란 짧은 삶을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동인이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분노를 늘 키울 수 있었다. 정녕 이곳엔 이곳 언덕 위 가시나무마냥 미움이 뼈죽뼈죽 솟아올랐고, 마을을 돌며 칭칭 감고 있는 짙은 안개처럼 서로를 감추었으며, 울타리 위 햇불처럼 야망을 활활 태웠으며, 기쁨 든 논바닥처럼 갈라질 대로 갈라져 서로가 싸웠다. 꿈나라를 치기까지는.

칼나라 사람들이 꿈나라로 갔다. 칼나라가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질 때 꿈나라 사람들이 던져댄 것은 겨우 돌조각이었다. 칼나라는 쉽게 꿈나라를 아울렀다. 남자들은 어린이이고 노인이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 버렸고 여자들은 노예나 노리개로 삼았다. 꿈나라 사람들이 만든 조각과 그림을 자기 집 벽에 장식했고 노래와 이야기도 칼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바꾸어버렸다.

훗날 사가들은 기록한다. 먼 옛날 꿈나라라는 예술도 문화도 없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가 있었다고.

—「세계사라는 것, 『찾지 않는 개』¹⁾

1. ‘오래된 미래’를 삼국유사와 신라에서 찾다

1999년 가득 희망을 품고 밀레니움 축제를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랴. 근대화와 산업화, 자본주의화의 소용돌이 속에 그 전단계의 인류는 꿈도 꾸지 못하였던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구촌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복지국가를 이루었는가. 21세기가 도래했지만, 지금 인류는 위협 속에 있다. 현재 세계 인류는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 인간성의 상실과 이성의 도구화, 제국의 세계화와 일상화, 소외와 갈등의 심화와 보편화, 공동체의 파괴, 억압

1) 『찾지 않는 개』는 출간 예정인 필자의 성인 우화집이다.

과 폭력의 구조화 등 여러 위기를 맞고 있다. 불행하고 고통스런 삶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다. 제3의 길, 공동체 운동, 생태이론과 운동 등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라다크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를 준다. 히말라야의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땅을 안고 사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종족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긴다. ‘말을 1백 마리 가진 사람이라도 채찍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이들의 속담처럼 이들은 모두를 부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보고 존중한다. 하기는, 자신이 기른 가축을 죽일 때도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이들인데 사람에게 대해선 오죽하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한 인격체로 대하니 이들에게서 소외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맞서지 않는다. 이들은 질병조차 이해의 결핍에서 생긴다며 상대방을, 자기 앞의 세계를 늘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싸려 하기에 스트레스는 없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짐승의 오줌과 똥을 비료와 연료로 쓸 정도로 낭비를 하지 않고 거의 완전해 가까운 재활용을 하며 자연과 철저히 공존하는 삶을 산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16년간 관찰한 이방인 학자에게 묻는다.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 이방인 학자, 노르베리 호지는 결론을 내린다. 협동과 공생과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항상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라다크야말로 서구 산업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 ‘오래된 미래’라고.

필자가 『삼국유사』를 통해 읽어낸 신라인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다크에 모자라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원효와 의상의 철학과 같은,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차원 높은 원리 또한 있었



다.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당시 자료를 통해 오래된 미래, 신라로 답사를 떠나고자 한다.

신라 시대 효소왕(孝昭王, 692~702)은 왕 8년인 699년 친히 남시어 망덕사의 낙성연을 성대히 열었다. 효소왕이 막 부처님께 공향을 올리려는데 거지 차림의 비구가 자신도 이 잔치에 참석할 것을 청하였다. 왕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저 자리 끝에 앉으라”라며 허락하였다. 그렇게 재가 끝나고 파할 때에 왕은 조롱의 빛을 담고 “어디서 사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비파암이올씨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조소의 웃음을 띠고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거든 ‘국왕이 친히 올리는 재에 갔더라’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폐하께서도 역시 남에게 진신석가를 공양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공중으로 솟아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깜짝 놀라 그 뒤를 따르게 하였더니 거지 스님은 경주 남산 비파암에 이르러 바위 위에 지팡이와 발우만 남긴 채 사라졌다. 왕은 참회의 마음으로 석가모니의 분신이라 할 지팡이와 발우가 있었던 비파암 아래에 석가사(釋迦寺)를, 석가모니의 그림자가 사라지던 곳에는 불무사(佛無寺)를 세웠다.

『삼국유사』 「감통」편 ‘진신석가가 공양을 받다’ 조에 나오는 이야기다. 『삼국유사』엔 이처럼 부처님이 걸인이나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거지와 거리의 여인이 부처님이라는데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소홀히 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부귀하든 비천하든, 사람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든 그들 모두는 부처님처럼 존귀하니 귀히 여기라 말한다.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비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니 그들을 부처님 대하듯 하라 이른다. 이처럼 신라인들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품격을 지니고 있고 또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였다. 밥을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 베풀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합장

을 하며 감사하였고 일을 하면서도 관음보살님이 뿌리신 빛이 흙 알갱이 사
이 사이에 묻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신라 성덕왕(聖德王, 702~737)은 이름 그대로 덕도 많고 백성들
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아 강한 통치력을 발휘한 군주였으며, 불교 철학의
이상을 신라에 구현하려 한 지도자였다. 풍류도 등 여러 사상과 신앙을 하나
로 아우른 화엄만다라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연 성덕왕은 705년 교서를 내려
신라 전역에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살생을 금한다. 화엄만다라의 빛, 비로
자나불의 지혜의 빛이 온 신라에 고루 퍼지도록 한 것이다. 온 생명의 살생을
금하지는 이상을 실현한 군주가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그때 신라 땅 전
역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부처님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불심으로 가
득하였으리라. 미물인 벌레도 존귀한 생명을 가진 것이라 죽이지 못하는데
그누가 사람을 가벼이 여겼겠는가?

신라 애장왕(哀莊王, 801~810) 때 한겨울 밤이었다. 눈은 내려
깊이 쌓이고 밤은 깊었다. 황룡사의 정수 스님은 시린 겨울바람을 맞으며 삼
랑사에서 불일을 보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천엄사 문밖을 지나는데 어느 구
걸하는 여인이 그 앞에서 아기를 낳고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계울
과 중생구제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인을 품어주었다. 한참이 지났는
가, 지극한 정성은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운다던데, 여인의 불에 생기가 다시
돌아왔다. 더 이상 여인을 품는 것은 색욕인 듯하였다. 스님은 가사를 벗어
여인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겨울바람이 너무 시렸다. 그것만으로는 여인이
다시 얼 것 같았다. 스님은 속곳까지 벗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에었다.
이번엔 스님의 몸이 동태처럼 깨끗하게 얼었다. 스님은 뛰어난 절로 돌아왔
다. 거적을 덮고 오들오들 떨며 긴긴 겨울밤을 지새웠다. 하늘마저 쫄쫄 얼었
는데 별은 유난히도 맑았다.

『삼국유사』 「감통」편 '정수사가 추위에 언 여인을 구하다' 조
에 있는 이야기다. 그 여자는 당시 신라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아



기의 아빠로부터도 버려진 사람이었으리라. 정수 스님은 그런 여자를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겨 자신은 얼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건네주었다.

2. 의상대사에게 ‘제3의 길’ 을 묻다

흔히 원효는 민중불교를, 의상은 귀족불교를 지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의상은 최하층 양인(良人)으로 부처 먹을 땅 한 뼘이 없어 품을 팔아 연명하던 진정(眞定), 노비인 지통(智通)을 제자로 삼았으며 국왕이 하사한 밭과 노비를 사양하였다. 원효가 많은 책을 남겼다면 의상은 많은 절을 남겼다. 신라 시대 절 가운데 상당수가 의상이 창건한 것이다. 의상은 신분이 엄격한 신라 사회에서 방방곡곡에 절을 창건하여 그곳에 노비와 양인, 귀족과 왕족이 평등하게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21세기인 오늘에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것이 테러와 학살을 낳는 상황에서 의상에게 제3의 길을 물었다.

법성(法性)은 원융하여 두 가지 상(相)이 없나니

모든 법이 움직임이 없어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가 끊겼으니

깨달은 지혜로만 알 뿐 다른 경지 아니로다.

진성(眞性)은 참으로 깊고 지극히 미묘해

자성(自性)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더라

— 義湘, 『華嚴—乘法界圖』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외친 이후 서양철학은 오랜 동안 자성(自性)의 사고를 하였다. 내가 어떤 동일성을 가져

‘나’라고 하면 나는 언제나 그 동일성을 가지는가? 내가 대상이나 타자와 만날 때 나는 그 대상이나 타자와 대립적인 위상에 놓이는가?

동일성은 타자와 나를 구분하고 대립시키는 데서 비롯되기에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의 담론과 실천을 낳는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킬링필드 등은 모두 동일성의 사유를 극단화하여 실천해서 빚어진 야만의 예들이다. 폴 포트를 만난 이들은 그가 온화하고 겸손하며 지적이면서도 따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캄보디아 인구의 1/4인 정도인 170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킬링필드로 보냈을까? 그의 뜻만큼은 숭고하였다. 캄보디아 농촌을 보고서 그는 캄보디아 전체를 농촌처럼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며 순박한 인심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순수한 농촌공동체를 동일성의 사유로 지향하였기에 타자—‘도시적인 것’—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하였다. 단지 안경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처형할 정도로.

부자가 빈자를 타자로 설정하여 착취하면서 계급갈등이 불거졌다. 선진국이 유색인종과 문화를 야만으로 치부하면서 그들에 대한 식민지 배와 수탈을 근대화와 산업화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제3세계 문제는 시작되었다. 미국의 네오콘이 이슬람 세력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면서 학살과 테러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착취와 학살, 전쟁의 대가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 2백여 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어린이이다. 난징 대학살 때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불구덩이에 던진 일본 군인이 악마의 화신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자성의 사고로 일본인이란 동일성을 형성하고 그 동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인을 배제해야 할 타자로 설정하였기에 가능하였던 일이다. 동일성의 사고로 20세기가 전쟁과 학살의 세기로 귀결되자 사람들은 동일성의 사유를 차이의 사유로 대체하고자 한다.



탈현대의 철학은 동일성을 차이로 전복시킨다. 차이가 동일성에 선행하며 형이상학이 근원으로 내세우는 동일성은 차이작용의 결과로써 생산될 뿐이다. 주체에 이미 타자가 들어와 있으며 인간 주체는 동일성을 갖지 못하며 “차이들로 이루어진 체계 속으로 스스로를 종속시킴으로써만 의미하는 주체가 된다. 우리가 동일하다고 믿은 것은 차연 속의 타자이며, 타자 속의 차연에 불과하다.”(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의상은 무이론(無二論)을 편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불변하여 영속적이고 일원적이며 독립적인 것이 자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도 변하고, 달의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밝은 부분이 드러나고 씨가 있어서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씨가 있듯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기에 자성(自性)이 없다. 연기하는 모든 법은 자성이 없기에 공(空)하다. 객이 있어서 주가 있고 허상이 있어서 실체가 있으니 상(相)으로 드러난 것은 모두 허상이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스스로 ‘지구의 위성’인 것이 아니다. ‘달’은 스스로 아무런 의미도, 본질도 갖지 못한다. ‘달’은 ‘별’과의 ‘차이’를 통하여 ‘지구의 위성’이란 의미를 드러낸다. 달은 텅 비어 있을 뿐이며 별과 차이를 통해 ‘달스러움’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연기의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효과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실체라 할 것이 없이 공하다. 그러기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을 뿐이다.

의상의 무이론은 동일성의 사유를 부정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과 마주 보시라. 똑바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우리말로 ‘눈부처’라 한다. 내 몸속에 숨어있는 부처가 상대방의 눈동자를 거울로 삼아 비추어진 것이다. 눈부처를 바라보는 순간 상대방과 나의 구분이 사라진다. 설사 그를 살해하러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부처와 마주친 이는 차마 칼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자성과 동일성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라면 우리는 타자에 대해 폭력을 가할 수 없다. 서로를 악의 축이라며 테러와 학살을 일삼던 미국인과 이슬람인이 서로에게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공존의 악수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의상의 무이론은 세계가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의상은 동양과 서양,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제3의 길을 제시한다.

3. 원효 성사가 21세기의 패러다임을 가리키다

전 지구가 환경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초 동안 0.6 헥타아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하루에만 100여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2050년까지 80%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여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는 3도, 해수면은 0.65미터나 상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한다. 오늘도 수억의 생명체가 제 명보다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홍수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댐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모더니티 위기의 핵심엔, 테리다의 지적대로 모든 것을 이항대립으로 나누고 한 쪽에 절대적 우월권을 준 폭력적 서열제도가 있다. 서구사회는 인간과 자연을 이항대립으로 나누고 자연에 대해 인간에게 우월권을 주었기에 전자의 방식을 택하였다. 댐을 쌓듯 인간 주체가 자연에 도전하여 타자인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을 문명이라 하였다. 그러나 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물을 썩게 하고 결국 거기에 갇혀 사는 수많은 생물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변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하여 댐을 쌓는 것이 근대화라면, 물이 썩는 바람에 생명체가 죽어가는 것이 현대성의 위기이다. 이 예에서 보듯 이항대립에 바탕을 둔 서구의 패러다임은 거의 모



든 현대성의 위기의 동인이었다.

땀을 쌓는 것이 근대적, 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면, 물길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화쟁의 불일불이(不二)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졌던 최치원은 홍수를 막기 위하여 물길을 트고 나무를 심었다. 지금도 지리산 자락의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에 가면 낙엽활엽수림으로선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제154호)로 지정된 상림(上林)이란 숲이 있다. 1,100년 전 신라 진성왕(887~896년) 때 이곳의 태수인 고운 최치원은 홍수로 푹하면 넘치는 위천의 물길을 돌리고 이 숲을 조성하였다. 하림(下林)은 사라져버렸으나 지금도 폭 200~300미터, 길이 2킬로미터에 걸쳐 200년 된 갈참나무를 비롯하여 114종, 2만여 그루의 활엽수목이 원시림과 같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땀은 물을 썩게 하고 생명들을 죽이지만 숲은 빗물을 품었다가 정화한 다음 서서히 내보낸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산소를 머금고 이온작용으로 자연정화를 하며 온갖 생명들을 품는다.

이런 화쟁의 불일불이 원리에 대하여 원효는 다음과 같이 씨와 열매의 비유로 쉽게 설명한다.

열매와 씨가 하나가 아니니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또 씨와 열매는 단절된 것도 아니니 열매가 이어져서 씨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러나 늘 같음도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씨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生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같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滅하는 것이 아니다. 멸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생하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二邊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 가운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元曉, 『金剛三昧經論』

화쟁의 일곱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인 불일불이는 차이를 통하여 공존을 모색하지는 사유체계다. 씨는 스스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으나 열매와의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 씨와 열매는 별개의 사물이므로 하나가 아니다[不二]. 국광 씨에서는 국광사과를 맺고 홍옥 씨에서는 홍옥 사과가 나오듯, 씨의 유전자가 열매의 거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고 열매는 또 자신의 유전자를 씨에 남기니 양자가 둘도 아니다[不二]. 씨는 열매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공(空)하고 열매 또한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이 또한 공하다. 그러나 씨가 죽어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자라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열매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씨를 낸다. 씨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면 씨는 썩어 없어지지만 씨가 자신을 공하다고 하여 자신을 흙에 던지면 그것은 싹과 잎과 열매로 변한다. 공(空)이 생멸변화(生滅變化)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쟁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투쟁과 모순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켜 타자를 이루게 하는 상생의 사유체계이다. 서구의 이항대립의 철학이 댐을 쌓아 물과 생명을 죽이는 원리를 이룬다면, 화쟁의 불일불이는 그 댐을 부수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며 물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은 물을 흐르게 하는 원리이다.

사랑이 깊고도 깊으면 얼굴마저 닳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금슬이 좋은 부부를 보면 부부라기보다 오누이 같다. 고등어 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이가 상대방이 맛있다고 하니 그 비린내가 생선의 독특한 맛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풋사랑하는 이들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만, 참사랑하는 이들은 내가 그리로 물처럼 흘러 그를 이루려 한다. 내 방식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함께 바라



보는 것이 참사랑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E. Levinas, 1906~1995)는 사랑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신의 모습을 본다 했다. 그러니 왜 얼굴 인들 닳지 않겠는가? 그리 나를 소멸시켜 상대방을 이루려 하는 것이 참사랑이요, 화쟁의 불일불이이다. 원효는 흐린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아내는 선지 자처럼 혼돈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21세기의 패러다임을 가리킨다.

4. 글을 마치며

의상의 무이론이나 원효의 화쟁은 진정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 또 화쟁의 패러다임을 인류가 받아들인다고 세상이 변할까? 원효의 화쟁 철학을 대안문명과 연관시켜 여러 주에 걸쳐 강의를 하였다니 종강하던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하였다. “화쟁이 21세기의 대안의 패러다임이란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는가?”

상부구조의 변화만으로 토대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비과학적 인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분명 토대는 변하고 있다.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일방향 소통을 하였다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쌍방향 소통을 한다. 자연 일방향의 원리나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상생과 화쟁의 패러다임이 이들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로 서리라.²⁾

2) 필자는 원효의 화쟁 철학은 디지털 사회에도 독자와 작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이 무너지고 서로가 네트워크하여 새로운 무엇을 창조할 수 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원효의 화쟁 철학은 소외, 공동체의 파괴, 폭력의 구조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여기선 지면 관계로 한 가지만 예로 들었다. 상세한 논의는 출저,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현양대 출판부, 1999),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기관지인 『법회와 설법』에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현대사회의 위기와 대안의 패러다임으로서 화쟁사상」이란 이름으로 8차례에 걸쳐 연재한 글을 참고바란다.

더불어 필자가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질문을 받고서 필자는 서너 명의 학생의 이름을 부른 다음 “너희는 상놈의 자식이니 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다. 미안하지만 조용히 나가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당사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 교실은 ‘썰렁’ 그 자체이다. 썰렁함이 어느 정도 강의실을 휩쓸고 지나갔다 생각하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한다. “바로 2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무지막지한 말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상놈은 아예 교육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교육은, 만인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대원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성의 힘’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중세적 세계관에 맞서 휴머니즘의 원칙을 외치던 이들은 당시 전 인류를 통틀어 몇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 화쟁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다. 정당성이 있으면 힘을 가지며 가능성도 따라간다.

오늘 세상은 타락의 극이다. 그럼에도 나는 새 시대에 대해 희망을 가진다. 아직 무엇을 모르던 청년 때처럼 세상과 인간에 대해 낭만적으로 바라보아서가 아니다. 지금은 정녕 서로가 서로의 악마스러움을 드러내는 시대이지만, 곧 서로가 자기 안에 내재한 부처들을 드러내는 시대로 전환이 되리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타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타락하게 하는 구조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 구조를 화쟁의 구조로 바꾸어야 하지 않은가? 세상을 타락하기보다 내가 먼저 부처가 되려 한다면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 속에 내재한 부처를 드러내지 않겠는가?

미봉책의 대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지금의 문명을 송두리째 부정할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씨와 열매처럼 자신을 소멸시켜 상대방을 이루려 한다면, 그 원리에 따라 사회를 재편하고 가치관을 혁신하고 모든 생산을 차츰차츰 이 원리에 따라 해낸다면 인간은



함양의 상림처럼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인드라 생명공동체처럼 연기법이나 화쟁의 패러다임에 따른 생태공동체가 이곳저곳에 생기다 보면 이 지구 전체가 그런 공동체로 왜 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동강댐을 놓느냐 마느냐로 시비할 때 미국 정부는 ‘미국의 강들’ (www.americanrivers.org)이라는 시민단체의 운동에 굴복하여 이미 지어진 댐을 수십 개나 파괴하였다. 그러자 물은 흐르면서 자신을 정화하면서 1, 2급수를 회복하였고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때로는 물살을 가르고 때로는 낚시를 던지고, 또 때로는 아름다운 강가에서 사랑도 나누고 사색을 하며 느리고 여백이 많은 삶을 다시 즐기게 되었다.

이렇듯 화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화쟁 식의 대안은 서서히 모색되고 있다. 그런 행동을 낳은 원리가 화쟁의 불일불이라고 알려준다면 화쟁의 대안은 좀더 힘과 구체성을 갖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서양의 대안을 모두 폐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상림을 만들어 천여 년 간 홍수를 막으면서도 위천의 물이 맑게 유지되도록 하였지만 최치원이 부임한 그해는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최치원 선생은 상림을 조성하기 전에 독을 쌓았다. 이처럼 화쟁의 패러다임은 서양과 동양, 이성을 넘어선 세계와 합리성, 현대와 탈현대 대의 대안 또한 하나로 아우른다.

칼나라가 꿈나라를 쳤다. 꿈나라는 망했다. 칼나라에 꿈을 꾸는 이들이 태어났다. 오랜 시간이 흘러 칼나라가 꿈나라로 바뀌었다.

—「역사라는 것, 『짓지 않는 개』



이도흠 | 1958년 제천 출생. 한양대 졸업. 저서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등 공저 포함 10여 권. 학술논문 50여 편. 의상과 만해연구원 연학실장 역임. 한양대 국문과 교수. 계간 『문학과 경계』 주간.